KISA 정보보호 해외진출 전략거점(동남아) 7월 주요동향

2023. 7. 31(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단 글로벌협력팀

이 슈	주 요 내 용 및 시 사 점
[인도네시아]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 해외 정보보호 전문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영국과의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 인도네시아 BSSN과 영국 정부가 사이버 보안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8년 협약과 2022 ~ 2024 인도네시아-영국 파트너십 로드맵을 통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정보 공유를 촉진하며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국가 사이버 전략, 사이버 거버넌스, 사이버 사고 대응, 사이버 범죄,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및 연구 등의 분야를 포함 ✓ 일본 및 캐나다와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 BSSN은 일본 대사관과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예의 방문을 받았으며, 양국 간 사이버 보안 관계의 긍정적인 진전과 인도네시아의 사이버 보안 능력 강화에 대한 협력 지원을 표명 ✓ 스페인과 SOC 고도화를 위한 협력 강화 · 스페인과 협력하는 사이버 보안 강화 프로젝트는 국가 사이버 보안 운영 센터(NSOC)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가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며,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팀(CSIRT)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 BSSN, 지방 정부와 사이버 보안 협력** ✓ BSSN은 19개 지방 정부에 전자 인증서 활용에 관한 MOU 체결 · 전자 인증서 활용에 관한 양해 간 MOU 서명을 통해 19개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 취약점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 · MOU 서명에 참여한 지방 정부들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변혁과 국가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지지하는 데 헌신 · 서명한 일부 지방 정부에는 벵구루 주정부, 남 파푸아 주정부, 로크스마우레 시정부 및 방가이라우트 지구정부 등이 포함 **▸ 인니 정부 국가·공공기관 CSIRT 구축 지원** ✓ BSSN 지원으로 페루리(Peruri) CSIRT 구축 지원 · 페루리(Peruri, 인도네시아 조폐공사)는 BSSN의 협력을 통해 Peruri-CSIRT를 구축하여 공식 출범 · 페루리-CSIRT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2022년 6월에 시작되었으며, 사이버 보안 성숙도(CSM) 및 INDI 4.0 준비 지수 측정과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 사이버 보안 인식제고 캠페인** ✓ BSSN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SIAP #JagaRuangSiber 캠페인을 시작 · 본 캠페인은 개인과 기관이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 관행을 채택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학습하도록 장려 · 개인과 기관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해 교육 자료,

이 슈	주 요 내 용 및 시 사 점
	실용적인 안내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제공 ·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공격 위협, 금융 리스크, 기업 보안 및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력 향상에 초점 · BSSN은 사회적인 우려 사항에 대응하고 대중과 공감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보급
[말레이시아] 사이버 보안 사고	▸ **개인정보보호국(JPDP)은 Misi Rakyat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사고 조사** ✓ 위 사고에 대한 세부사항이 해커에 의해 7월 3일과 4일에 각각 BreachForum과 Telegram에 업로드되었으며 JPDP는 말레이시아 컴퓨터 비상대응팀(MyCert)으로부터 사고 보고서를 받았음 ✓ Misi Rakyat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에 사건을 확인하고 데이터 샘플을 제공할 것을 요구. JPDP는 개인정보보호법 2010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SM과 협력 중 ✓ Misi Rakyat은 자체 음식 배달 앱을 갖춘 모금 웹사이트임
[태국]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 **태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향한 여정** ✓ 태국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PDPA)을 도입하여 2022년 6월 시행. PDPA는 데이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들에게 개인정보의 이용 및 공개에 대해 알려야 하는 내용을 규정 ✓ PDPA 준수를 위해 국가 디지털경제 및 사회위원회는 고급정보기술주식회사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정부 플랫폼(Government Platform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Compliance, GPPC)을 개발 ✓ 정부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태국은 데이터 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연간 50억 바트 이상의 비용 절감을 달성하며,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
[태국] 사이버 사기 대응	▸ **SET(The Stock Exchange of Thailnad)는 사기 근절을 위하여 동맹 체결** ✓ The Stock Exchange of Thailand (SET)는 정부 기관 및 사업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 시스템을 통합하여 투자 사기에 대응. 이 협력은 Exchange Commission(SEC), the Federation of Thai Capital Market Organizations(Fetco), the Thai Bankers' Association(TBA) 등 다양한 단체를 포함 ✓ 투자 사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기꾼들이 유명한 기관 및 개인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 ✓ 이러한 협력은 부정투자 사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관련 사실을 밝히고 가짜 뉴스를 식별하며, 투자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식을 제공하는 데 목표. 또한 은행들은 금융 및 투자 사기를 대응하기 위해 고액의 모바일 뱅킹 거래에 얼굴 스캔과 같은 조치를 시행
[베트남] 지방 공공 서비스 보안 점검	▸ **온라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보안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 확인** ✓ 2022년 상반기 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공공 서비스 도입이 낮은 수준이며 국민의 약 18%만이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이 슈	주 요 내 용 및 시 사 점
	✓ 이는 서비스의 완성도가 낮으며,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부재, 비효율적인 서비스 등으로 조사 ✓ 또한 연구팀은 다섯가지 주요 결함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기능적인 문제, 시각 장애인 및 소수민족에 대한 접근성 장애, 개인 데이터와 정보 보안의 불충분, 중앙과 지방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결 부족 등을 지적 ✓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팀은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읽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과 평가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권장. 또한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과 지방 포털 간의 데이터 연결을 강화하고 기술적 표준에 대한 규정 수립을 제안
[베트남] 디지털 정부 구축	▸ **디지털 정부 구축의 성과 평가** ✓ 행정 개혁을 통한 디지털 정부와 전자 정부의 발전에 대해 내놓은 현황을 홍보하는 내무부는 상반기에 국가 데이터 교환 플랫폼이 2억 7690만 건의 거래를 원활히 진행하였으며, 공무원과 공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23개 부처와 60개 지역과 연동 ✓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다양한 부처, 기관, 지역 및 기업과 연계되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기여 ✓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은 7.77백만 개의 계정으로 4,400개 이상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6.05조 VND 규모, 1,098만 건 이상 거래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도가 느리고, 서류 디지털화가 늦음을 지적
[싱가포르] 국제협력 강화	▸ **싱가포르와 영국, 테크 리더십 강화를 위한 협약** ✓ 영국 올리버 다우든 부총리의 싱가포르 방문 중, 영국과 싱가포르는 사이버 보안, 연결성,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두 개의 협정에 서명 ✓ 이러한 협정은 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경험 공유, 인공지능 파트너십 촉진, 기술 표준 조정,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연구, 디지털 무역 확대, 데이터 규제와 관리에 대한 협력 등에 초점 ▸ **디지털 시대의 싱가포르-중국 협력** ✓ 싱가포르와 중국은 연결되고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위한 보다 긴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 ✓ 양국은 AI 개발을 우선시하고 연구, 특허 및 산업 센터에 투자하기로 합의 ▸ **디지싱가포르-베트남, 녹색 디지털 경제 강화** ✓ 싱가포르의 무역 및 산업 제2부상 탄시렝 박사는 방문 중 베트남과의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싱가포르의 역할을 재확인 ✓ 재생에너지, 지속 가능성 및 혁신과 같은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및 싱가포르-베트남 연결성 장관 회의(CMM)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 ✓ 그린 및 디지털 산업에서의 협력이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 성장 및 취업 창출을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 ✓ 그린-디지털 경제 파트너십에 관한 협약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미래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자원 효율성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위해 그린 및 디지털 기술을 결합

KISA 정보보호 해외진출 전략거점(중남미) 7월 주요동향

2023. 7. 31(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단 글로벌협력팀

이 슈	주 요 내 용 및 시 사 점
[파라과이] 사이버 사고 대응 센터(CERT), 국가의 주요 기술 인프라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시	▸ **파라과이 & 미국과 공동으로 국가 주요 기술 인프라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시** ✓ 파라과이의 사이버 사고 대응 센터(CERT)는 국가의 중요한 기술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 ✓ 국가 사이버보안 계획의 일환으로 파라과이의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총국(DGCPI)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ISA)이 공동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수행 ✓ 파라과이 정부는 DGCPI와 CISA 간의 협력이 파라과이의 기술 자산 보호 역량과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중요 인프라 방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 두 기관 모두 중요한 기술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조정된 접근 방식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프레임워크의 단계와 목표) ✓ 이 프레임워크는 국가 안보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온라인 서비스 및 기타 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파라과이 국가 기능에 필수적인 기술 시스템 및 서비스의 식별, 평가 및 보호에 중점을 둘 예정
[중남미] 멕시코 및 우루과이, 중남미 지역 내 IPv6 높은 채택률	▸ **우루과이 및 멕시코, IPv6 채택률 증가** ✓ LACNIC(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인터넷 주소 등록부)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우루과이와 멕시코가 최신 버전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인 IPv6 채택을 주도하는 국가로 언급 ✓ 지난 몇 년 동안 정부, 통신 사업자 및 기업은 이전 세대 IPv4 도메인 주소가 이미 이 지역에서 소진되었기 때문에 IPv6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음 ✓ IPv4는 5G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인공 지능 또는 커넥티드 차량 등 새로운 주소가 필요한 새로운 기술,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음 ✓ 이에, IPv6가 구현되지 않으면 디지털 격차를 좁힐 수 없으며 현재 우루과이가 IPv6 채택에서 가장 발전된 중남미 국가이며 그 뒤를 멕시코가 잇고 있다 발표. 양국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이 세계 평균보다 높음 ✓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의 전 세계 평균 채택률은 40%이며 멕시코에서는 아웃바운드 인터넷 트래픽의 42-45%가 이미 IPv6를 통해 생성되고 있음. 우루과이에서는 그 비율이 56.3% 이며 그외 브라질(43.8%), 파나마(30%), 페루(25.5%)임 ✓ LACNIC의 예측에 따르면 중미 지역이 51% IPv6 이용률을 2023년 가장 먼저 도달할 것이며 남미에서는 2027년이 되어야 같은 비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LACNIC는 IPv6을 통해 네트워크를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과제에 직면하기 위해 IPv6 채택이 필수적이라고 경고

이 슈	주 요 내 용 및 시 사 점
[브라질]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등 논의	▸ **브라질 당국, 인공지능 관련 법안 논의** ✓ CNPD(National Data Protection Council) 구성원이 모여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 2338/23에 대해 논의 ✓ 정부 당국 및 CNDP 구성원과 함께 ANDP(National Data Protection Authority)가 웹비나를 통해 인공 지능의 개발, 구현 및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일반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 ✓ 패널리스트들은 효과적인 법률 적용을 위해 분석, 검토해야 할 측면을 지적 ✓ ANDP, Waldemar Gonçalves 위원장은 LGPD(개인정보보호법)에 이미 제공된 규칙 및 규제 메커니즘과 혁신 및 위험 관리에 필요한 균형을 촉진하고 개인 데이터 및 기본권 보호에 대한 조항을 강조 (데이터 마이닝 및 재평가) ✓ 에스텔라 아라냐(Estela Aranha) 법무부 장관 고문은 교육 및 기계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및 자동화된 의사 결정 시스템에 적용되는 알고리즘 차별 사례를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 ✓ 그는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의 목표가 특정 개인과 그룹에 특정 특성을 안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작동 방식 때문에 매우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모델이 구별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불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 ✓ 또한 기계 학습과 자동화된 결정이 가장 취약한 그룹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브라질리아 대학(UnB)의 민법 부교수인 Laura Schertel은 LGPD의 일부 개념이 인공 지능 사용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고 업데이트 될 수 있으므로 AI 규제와 데이터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의 중용을 강조 (의회) ✓ 상원 통신 및 디지털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에두아르도 고메스(PL-SE) 상원의원은 브라질이 마침내 인공 지능 측면에서 시민에 대한 보안 및 최소 보장 매개 변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 ✓ 또한 국회가 개방되어 있으며 법무부 장관 플라비오 디노 (Flávio Dino)와 연방정부 및 야당과 대화하여 규제 측면에서 최상의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발표 ✓ ANDP는 행사 후 공공 기관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가이드를 배포
[브라질] MS, 콜롬비아 지역 내 사이버 보안 교육 지원	▸ **브라질, 사이버 보안 전략 유효 기간, 1년 연장** ✓ 브라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ANPD)가 침해신고를 기반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텔레마케팅 회사인 Telekall Service가 2020년 우바투바 지방 선거 홍보목적으로 WhatsApp 연락처 목록을 제공하여 일반 데이터 보호법(LGPD)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짐 ✓ LGPD 제 41조에 근거, 개인정보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경고 외에도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명시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 받음 ✓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벌금은 2022년 매출액 기준 2%로 제한 ✓ 또한, 회사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반 금액에 대해 25% 감면 가능
[콜롬비아] 정보보안 전문기관인 국가 디지털 보안국 창설 법안 처리 중	▸ **콜롬비아, MinTIC(콜롬비아 정보통신부) 디지털보안 강조** ✓ 콜롬비아 정보통신부인 MinTIC은 정보보안 의회에서 역내 디지털 보안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보보안 전문기관인 국가 디지털 보안국(National Digital Security Agency) 창설 법안이 곧 처리 될 예정

이 슈	주 요 내 용 및 시 사 점
	✓ MinTIC 장관인 Mauricio Lizcano는 콜롬비아의 '생물 정보학 및 전산 생물학 센터 BIOS' 만들기 위해 $10.000 millones를 할당했으며, 사이버 보안 운영 센터는 해커 제어 공격을 시뮬레이션하고 기업 및 정부 기관의 디지털 취약성을 실시간으로 검토하는 데 이용될 예정 ✓ 장관은 사이버 보안은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Bios에 대한 지원에는 콜롬비아 가정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단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및 센터의 창설이 포함됨을 다시 한 번 강조
[중남미] 통신기업을 위한 상호운용성 연구소 설립	▸ **중남미 국가 간 통신기업을 위한 상호운용성 연구소 설립** ✓ AMD와 Whitestack, Dell은 라틴 아메리카 통신 기업을 위한 최초의 상호 운용성 연구소인 Telco Cloud를 설립 ✓ 칠레에 설립된 동 기관은 운영자가 "보다 민첩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최첨단 처리 및 소프트웨어 리소스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서 발표 ✓ 5G 배치 및 4G 커버리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시에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해당 지역의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용량을 100배 증가시킬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요. 또한, 2027년까지 남미에서 약 3억 9,800만명의 5G 연결을 목표 ✓ AMD의 남미 지역 데이터 센터 리더 인 Juan Moscoso는 동 센터가 "클라우드 가능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적, 창의적 잠재력을 발휘하고 Dell 서버 솔루션 및 화이트스택 소프트웨어와 통합된 AMD의 컴퓨팅 효율성을 통해 새로운 배포를 위한 시장 출시 시간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언급 ✓ 델 테크놀로지스 남미 데이터 센터 솔루션 담당 이사인 Juan José Oliver는 Dell PowerEdge 서버의 경우 Capex가 약 23% 절감되고 에너지 소비, 공간 및 인프라 감소를 통해 Opex를 최대 37%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
[코스타리카]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필요성 논의	▸ **코스타리카, 지방자치단체 SOC 구축 필요성** ✓ 코스타리카 지방 자치 단체는 작년 Conti 및 Hive 공격 이전부터 사이버 범죄자의 지속적인 표적이 되어 옴 ✓ 이에 IFAM(Institute of Municipal Development and Advisory)이 주최 한 정보 기술 및 스마트 시티 제3차 총회에서 코스타리카 대학(UCR) 컴퓨터 센터 소장인 Henry Lizano가 CSIRT(Municipal Sectoral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Center) 설립 가능성 제기 ✓ 지방 정부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훈련 및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며, 다른 지방 자치 단체가 공격 받을 시, 조직 범죄 집단을 식별하고 역량 강화 및 단결이 필요함을 강조 ✓ (지자체 훈련) 이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운영 센터인 SOC를 제공하고 있으며 Cyrebro라는 이스라엘 도구를 사용하여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모든 사건의 상관관계를 만들고 인공 지능을 통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주의를 두고 있음 ✓ 마스터 카드의 라울 리베라(Raúl Rivera)는 코스타리카 내 사이버 범죄자의 16.5%가 코스타리카 지방 자치 단체를 겨냥한다고 설명

이 슈	주 요 내 용 및 시 사 점
	✓ 국가 지방 자치 단체의 사이버 보안 분석 결과 50% 부문에서 걱정스러운 결과를 보임. 지방 자치 단체의 내부 보안 문제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 취약점을 악용한 지속적인 범죄 가능성이 가능함 ✓ 특히, 지방 자치 단체 웹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프트웨어 패치의 업데이트 되지 않아 발생. 또한, 인터넷 연결 서비스 이용 시, 제대로 된 암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 ✓ 두 번째 문제점은 전자결제 응용 프로그램 이용 시, 보안이 보장되지 않은 기술이용으로 랜섬웨어 중 하나 인 "Rivera“ 공격 대상이 되고 있음 ✓ 시장과 시의회는 보안을 위한 사이버 사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재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서비스 및 사이버 보안 격차를 줄여야 함
[콜롬비아] 디지털 보안 전략의 요점 제시	▸ **콜롬비아, 디지털 보안 전략의 요점 제시** ✓ 콜롬비아 ICT 장관 마우리시오 리즈 카노 (Mauricio Lizcano)는 역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디지털 보안 전략 발표 ✓ 동 전략은 4 가지 주요 행동강령을 포함하며 국가 사이버 보안국(National Cybersecurity Agency)의 창설을 주요 포인트로 삼고 있음 ✓ 또한 콜롬비아의 사이버 비상 대응 그룹인 Colcert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CERT는 MinTIC의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국가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한 예방, 완화, 관리 및 대응을 조정하는 연락 창구임. 다만, 자세한 강화 방안이 제시되진 않음 ✓ 전략의 세 번째 단계는 칼다스에 사이버 보안 센터를 만드는 것이므로 약 10 억 페소가 투자 될 예정 ✓ 마지막 단계는 SENA 및 디지털 부문의 회사와 같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해당 국가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명시 ✓ 다만 동 전략의 개발 및 수행 방안, 그리고 지난 6월에 데이비드 루나 상원의원과 아나 마리아 카스타네다 상원 의원이 발표한 국가 디지털 보안국 (ANSD) 을 창설하는 법안의 구체성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음 ✓ 사울 카탄(Saul Kattan)이 발표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일부 하원 의원들이 '스파이 기관'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부되었으며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야당 의원들의 의구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음
[ITU/브라질] ITU 사이버보안 관련 브라질 제안 채택	▸ **ITU, 브라질이 제안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아젠다 채택** ✓ 국제 전기 통신 연합 (ITU) 이사회 연례 회의의 네 번째 본회의에서 48개국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의제 (GCA) 창설을 위한 브라질의 제안을 합의로 승인 ✓ 이 결정이 채택되면 회원국은 개발해야 하는 사이버 보안 기능과 구현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접근이 가능하며 ITU 자체 및 ITU 회원국 간 정보에 대해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브라질의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gency(Anatel)가 설명 ✓ 브라질 Anatel은 규제 기관의 대표 간 제안 및 협상을 제시하는 일을 담당 ✓ 브라질 제안의 승인으로 ITU 사무국은 세 부문(전파통신, 개발 및 표준화)의 이사들과 협력하여 다음을 고려하여 회원국을 위한 자원을 개발할 예정 ✓ (a) 해당 문제에 대한 기존 모범 사례의 예 ✓ (b) 국가의 사이버 보안 및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ITU 자체 및 기타 관련 조직 내에서 기술 조언, 지원 및 지침의 출처 식별 그리고

이 슈	주 요 내 용 및 시 사 점
	✓ (c) ITU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역량 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페루] 한-페루 사이버 보안 공동 포럼 개최 예정	▸ **페루, 한-페루 사이버보안 공동 포럼 개최 예정** ✓ 8월 개최예정인 한-페루 디지털 보안 및 신뢰 포럼은 국내외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 ✓ 동 회의는 각료회의(PCM) 의장단과 페루의 한국 협력에 의해 시행 된 국가 디지털 정부 플랫폼 운영의 연속적인 행사로 과거에는 국립 공과 대학(UNI)에 사이버 보안 전문 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함 ✓ 동 행사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공공 기관, 대학 및 기업가의 공무원부터 모든 개인과 기관이 참석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 및 기술 동향에 대한 대화의 공간이 될 예정  ✓ 한-페루 디지털 보안 및 신뢰 포럼에서는 한국과 페루 간 협력 진전, 페루 국가 디지털 보안 센터 강화 성과, 가장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 유형 및 새로운 기술 동향 등 사이버 보안 분야의 관련 문제도 다룰 예정 ✓ 또한 국가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제시 예정 ✓ 한국-페루 디지털 보안 및 신뢰 포럼은 8월 10일 개최 예정
	▶ **시사점** ✓ 브라질,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제안 및 콜롬비아, 국가 사이버보안국 창설 추진 등 남미 지역에서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책이 중미 지역에 비해 활발히 진행 ✓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동으로 8월10일 한-페루 사이버보안 공동포럼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다방면으로 한국 사이버보안 역량 홍보를 통한 중남미 지역 내 우리 기업 진출 지원 기회 확대 필요

KISA 정보보호 해외진출 전략거점(중동·아프리카) 7월 주요동향

2023. 7. 31(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단 글로벌협력팀

이 슈	주 요 내 용 및 시 사 점
[사우디] 사우디 사이버 보안지수 세계2위	▸ **사우디아라비아, IMD 사이버 보안 지수에서 세계 2위** ✓ 사우디아라비아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국제 경영 개발 연구소(IMD)가 발표한 2022년 세계 경쟁력(WCY) 사이버 보안 지수에서 전 세계 2위를 차지 ✓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공공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분야에 있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한다고 설명 ✓ 사우디 정부는 또한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품과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버 보안 관련 기관을 통해 이 분야의 성장과 경쟁력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입법 및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정책개발에 힘쓸 것이며 사이버 보안 분야의 스타트업 설립 지원 등 산업육성도 강화할 것임
[사우디] 사우디의 사이버보안 기업 증가	▸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인터넷보안 기업 등록 52%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는 사우디에 등록된 사이버 보안 회사의 수는 전년 동기 1,462개에서 2분기 2,229개로 52% 증가했다고 발표 ✓ 리야드가 1,424건의 등록부를 발행하여 1위를 차지했으며, 메카(373건), 동부 지방(278건), 메디나(56건), 카심(23건)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힘 ✓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버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규제 등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함 ✓ IMD의 사이버보안지수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가 강화되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및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장치의 증가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이버 공격에 직면해 있으며, 2021년 첫 두 달 동안 700만 건의 사이버 공격 대상이었음 ✓ 사이버 보안청(NCA), 통신 및 정보기술부(MCIT) 등의 정부기관에서 법률 정비, 인재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옴
[요르단] 사이버 범죄 법안 개정 논란	▸ **요르단 의회에서 사이버 범죄 법안에 대한 논쟁** ✓ 요르단 국회의원들이 사이버 범죄법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언론인과 시민운동가들은 의회가 정부에서 언급한 논란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공공의 자유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 ✓ 정부는 증가하는 온라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법에 규정된 금전적 처벌을 강화했다고 함 ✓ 사이버 범죄 부서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건수가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8년 동안 거의 6배 증가했으며, 2015년에 2,305건을 처리했으며 2022년에는 16,027건으로 증가 ✓ 새로운 법률 개정안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가짜 계정을 다루고 온라인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 및 경제와 관련된 오류 정보 및 허위 정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증오심의 표현의 징역형 규정이나 가짜뉴스에 부과되는 벌금 증액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의 보호와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

이 슈	주 요 내 용 및 시 사 점
	▶ **시사점** ✓ 사우디는 지속적으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여 사이버보안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2022년 대비 사이버보안 기업이 증가하는 등 이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반영되고 있는 추세로 국내기업의 진출 기회 마련 필요 ✓ 요르단에서도 사이버범죄의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등 사이버보안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